

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된 환자

뇌졸중 발병 후 2~3주 내에 회복되는 환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오래 끌 것 같은 환자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한다.

인간은 누구나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자기만의 특성과 이미지를 갖게 된다. 이것은 곧 자신감을 갖고 삶을 살아나가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.

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동안의 심적인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.





심리적인 쇼크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려 하고 시중을 받으려 합니다.

가족의 이해와 보살핌보다 더 좋은 약은 없지만,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환자 자신이 하도록 자립심을 길러 주십시오.

